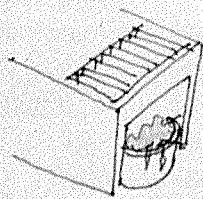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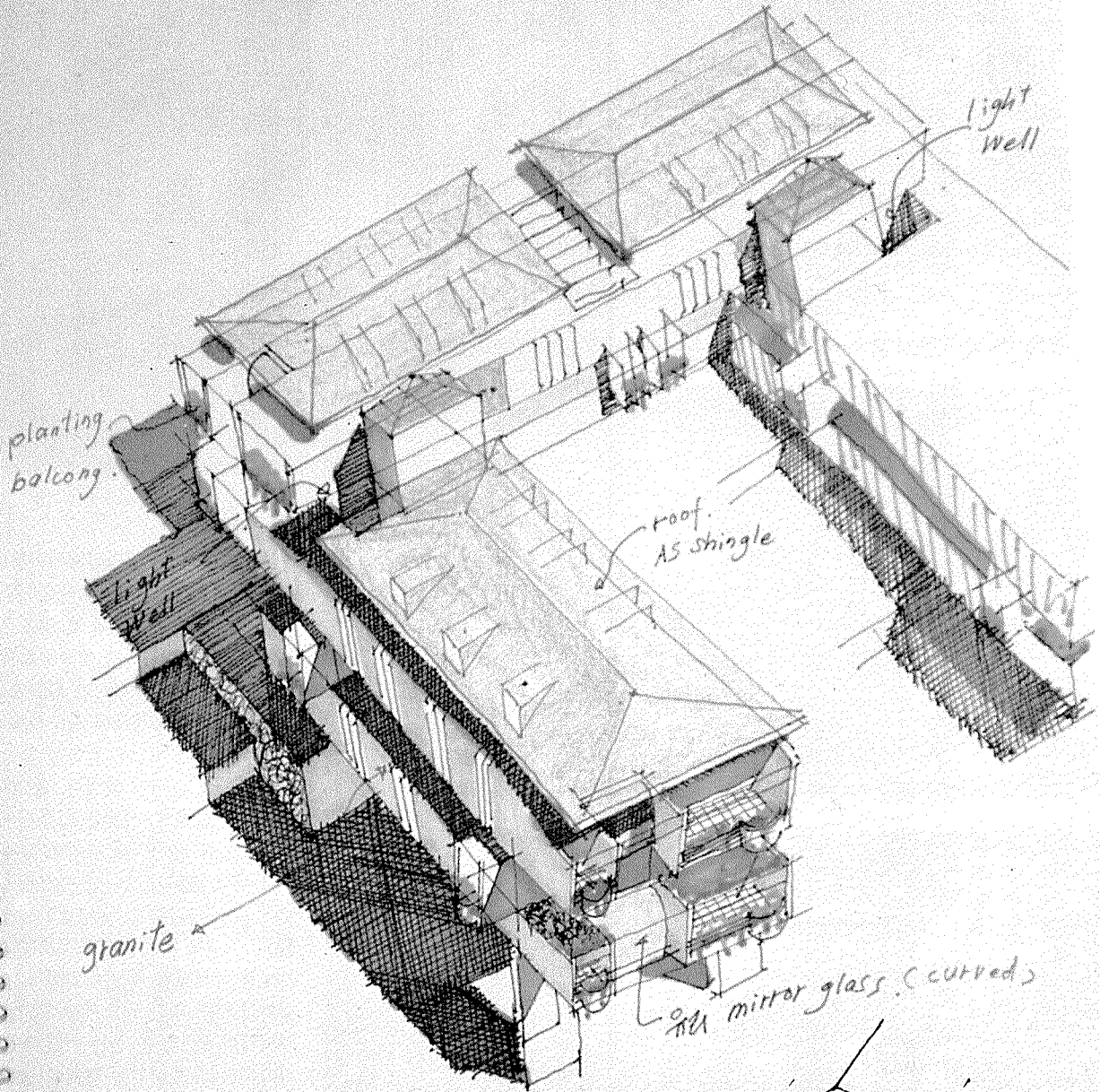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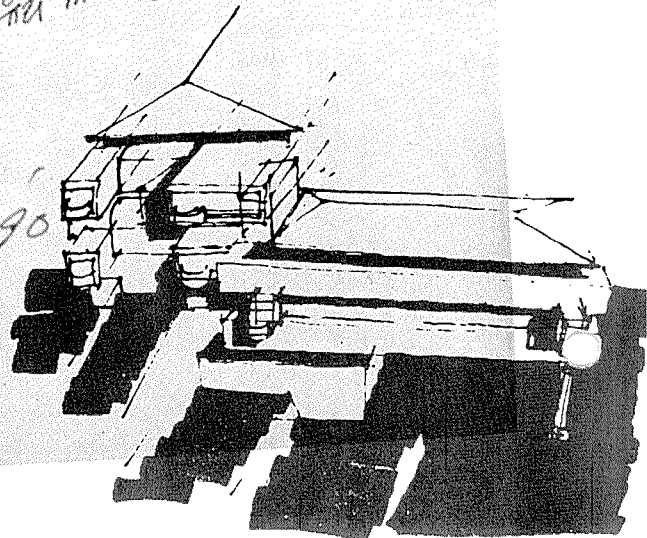
4의 스케치

11. Mar. '90.



planting balcony

11. Mar.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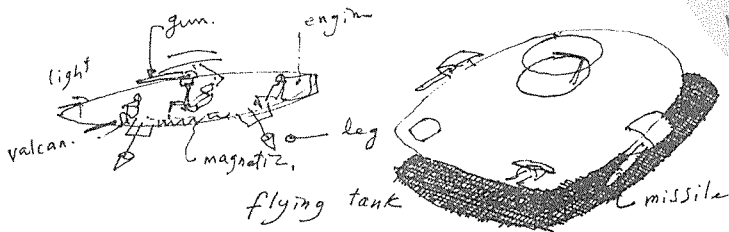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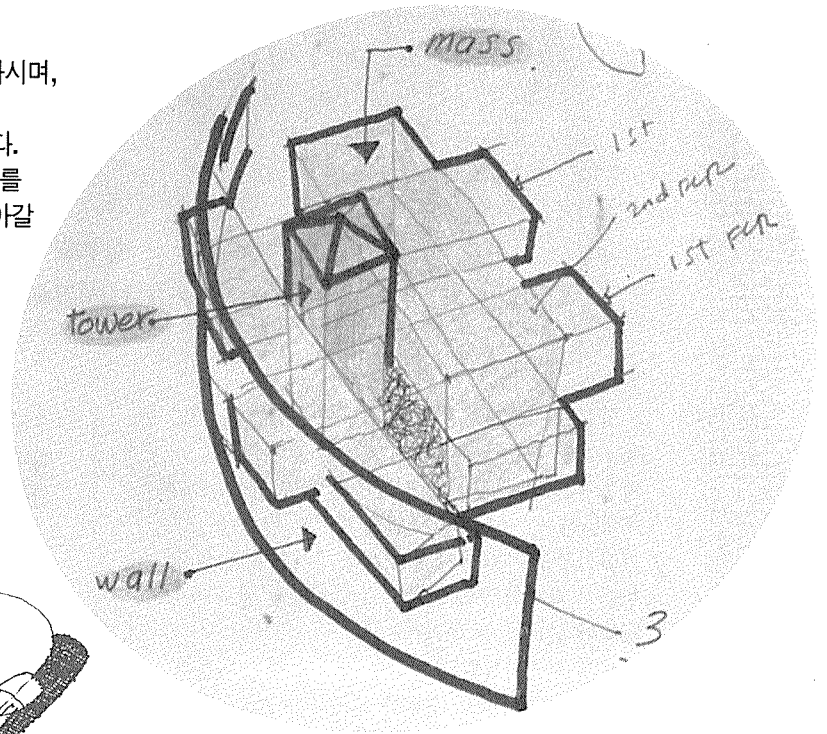


자연을 닮은 것은...

우리는 결국 자연속에서 산다. 대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며, 햇빛을 쬐이며, 자연이 준 식물을 먹고산다.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한다지만 결코 자연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연에 대항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자연에 맞서 우리를 지키는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죽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 삶이 부드럽게 되려면 자연에 따르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닮고 숭경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일부로 남고 자연과 하나가 된다.

여기 두개의 스kets치는 서로 다른 Project 이지만 둘다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 연립주택이다. 자연을 따르는 간절한 원망이 아쉬울 뿐이다.



金基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